취업시장 '꽁꽁' 취준생 "올 겨울 더 춥네요"

3분기 광주·전남 20대 취업자 감소·고용률 전국 평균 밑돌아
"물가 치솟아 아끼고 아껴도 한 달 알바비 2주면 다 떨어져"

"올 하반기에는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채용공고를 내는 기관이 없네요."

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도서관 앞에서 만난 최모(32)씨는 수년 째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마땅치 않아 광주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도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데다, 오랫동안 근무를 해온 선배들 역시 적은 월급을 받는 걸 보면서 미래가 암울했다고 한다.

그렇게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에 뛰어들었던 그는 지난해 한 공기업 시험에서 1순위 후보합격자 명단까지 올랐다. 이어 다른 공공기관 시험에서도 1·2순위 명단에 오르면서 "조금 만 더 하면 곧 취업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류에서부터 떨어져 시험을 볼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등 취업준비가 쉽지 않다고 했다. 무엇보다 하반기에는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문이 굳게 닫히면서 하루하루 조급해지고 있다.

최씨는 "그동안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채용을 하는 기관이 너무 없다"며 "해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도 더 이상 못할 짓 같다. 착잡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유모(여·27)씨는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수완지구 한 음식점에서 주 중 3일 정도 알바로 생활비를 벌며 취업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 달 받은 알바 급여를 2주 만에 다 써버렸다"며 "아끼고 절약해서 쓴다고 해도 물가가 너무 올라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광주·전남지역 취업준비생들에게 올 겨울 한파가 유독 매섭다. 올 3분기 광주·전남 2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청년 고용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기업도 기존 인원 감축에 나서면서 신규 채용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치솟는 물가로 생활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가뜩이나 퍽퍽하지 않은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날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취업자 수는 광주 75만4000명·전남 102만1000명 등 17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각각 3200명·1만9900명 증가했다.

하지만 2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2700명, 1700명이 오히려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30대 취업자 감소세(전년 동분기비)는 2019년 3분기 이후 13분기나 연속되고 있다.

또 15~29세 청년 고용률의 경우 광주는 전분기보다 떨어지면서 4분기 연속 7대 특·광역시 최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광주 38.5%·전남 39.9%로 전국 평균(47.2%)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광주 6.3%·전남 6.7%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6.1%)을 웃도는 등 취업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대면서 지역 내 기관들의 채용 규모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취준생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박영순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나주에 본사를 둔 전력그룹사 4곳은 정원을 533명 줄일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전은 현 정원(2만3728명)의 1.1% 수준인 260명 정원을 반납한다. 한국농어촌공사(-191명)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8명) 등도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향후 채용 규모가 불투명해져 취준생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0% 금리 '출첵적금' 출시
광주은행

높은 이율을 찾아 적금을 갈아타는 금융 소비자들이 늘면서 1금융권인 광주은행도 연 10% 금리 적금을 내세웠다.

광주은행은 첫 거래 고객과 마이데이터 출석을 확인받은 고객에게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출첵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적금은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개인 고객(1인 1계좌)을 대상으로 6개월 정액 적립식이나 자유 적립식으로 월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정액 적립식 기준 기본 금리 연 3.5%(자유 적립식 연 3.2%)에 첫 거래 고객은 연 3.5%포인트를 준다. 광주은행 마이데이터에 가입하고 자산을 연결한 고객이 스마트뱅킹 앱에서 하루에 한 번 '출석 체크'를 하면 회당 0.02%포인트(최고 연 3%포인트)를 준다.

김훈 광주은행 디지털 전략부장은 "금리 혜택도 받고, 여러 금융회사의 자산명세와 각종 조회,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도 이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중기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원자재값 상승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 약정서 기재 의무화…쌍방 합의 땐 예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소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으로 주요 사항은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 대금의 10% 이상인 것으로 정의됐다. 또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수탁기업간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는 약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 연동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인 연동 사항 기재 의무, 연동 협의 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연합뉴스

청년-지역 소통의 다리 '개통'

동네줌인, 10일 북구 오룡동에 '149브릿지' 문 열어

광주에 청년과 지역사회를 이어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 '149Bridge'(149브릿지)가 문을 연다. <사진>

예비사회적기업 '동네줌인'은 오는 10일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와이어스파크에 '149Bridge'를 개소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공간은 자립준비청년과 은둔형청년 등을 비롯해 새로운 시작에 나서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자 디딤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네트워킹을 비롯해 컨설팅, 비즈니스미팅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동네줌인은 2015년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후문 인근에 청년복합문화공간 '동네줌인'을 열고 3만명이 넘는 청년 및 청소년을 만나 상담 및 교류 등을 이어왔으며, 지역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했다.

이밖에 니트청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년·문화 행사를 추진해왔고, '움직이는 스튜디오'(장수사진 프로젝트), 사회공헌활동가 플랫폼 제작, 영구임대아파트 공실해결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는 "지역사회에 사람과 사람은 물론, 다양한 프로젝트와 비즈니스를 연결해주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149Bridge를 열게 됐다"며 "지역의 사람들과 일과 자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의 장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효성, 연말맞이 임직원 '사랑의 헌혈' 진행

효성은 지난 7일 연말을 맞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

효성은 2008년부터 15년째 '사랑의 헌혈'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9월과 12월 2회에 걸쳐 임직원 단체 헌혈을 진행했다. 또 헌혈하는 임직원에게는 대한적십자사 기념품 외 피자 기프티콘을 포함한 회사 선물도 준비해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추운 날씨에 사랑의 헌혈에 참여해준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사랑의 헌혈을 통해 효성 임직원의 따뜻함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효성은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사랑의 쌀 전달, 사랑의 생필품 나눔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김은경 금감원 부원장 광주서 예비 청년창업자 만나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소비자보호처장)이 8일 광주지역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금융 애로사항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광주시 동구 충장로5가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경 부원장과 김태성 금감원 광주전남지원장, 정장주 광주은행 부행장, 배복환 동구청 부구청장, 이안묵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은행과 광주시 동구, 광주신용보증재단이 협업해 운영하는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3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동구는 이들에게 창업교육을 하고, 광주은행은 대출지원, 광주신보는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교육 및 대출·보증 등을 적극 지원하는 광주은행, 동구청, 광주신보 등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광주은행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청년창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제주 감귤 농가 돕고 200가지 딸기 맛 보세요

롯데마트, 9~10일 감귤·갈치 할인전… 홈플러스 '딸기 유니버스'

대형마트들이 제철 맞은 농수산물을 오는 주말을 기점으로 할인 판매한다.

우선 롯데마트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제주 타이벡 감귤 3kg 한 상자를 3000원 할인한 9900원에 판매한다.

타이벡 감귤은 과수원 바닥에 다공질 필름인 '타이벡'을 덮어 반사광으로 일조량을 늘리는 재배법을 적용했다. 일조량을 늘린 만큼 당도는 올라가며, 가격은 일반 감귤과 비교해 20%가량 비싸다.

롯데마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감귤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 농가를 돕기 위해 제주감귤농협, 산지 영농조합법인과 협업해 이번 할인전을 마련했다.

또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품질을 강화하자는 '신선을 새롭게' 사업의 하나로 제주 갈치 한 마리(350g)를 오는 14일까지 8900원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신선을 새롭게' 사업 첫 품목으로 갈치를 고르고, 지난 4개월간 품질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한 달간 갈치 매출이 1년 전보다 40% 이상 신장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겨울 과일 대표 딸기를 200여 종 먹거리로 즐길 수 있는 '딸기 유니버스' 행사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딸기가 들어간 식품(3000원 상당)을 사고 도장 5개를 모으면 딸기 품목을 5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는 행사 카드를 딸기를 구매하면 '올겨울 처음 수확한 딸기'(500g)와 '올겨울 처음 수확한 알 큰 설향딸기'(700g)를 각각 5000원, 8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외 '살살녹는 장희딸기'(750g) 등을 행사 카드로 살 때 할인가에 선보인다. 딸기를 활용한 샐러드와 탕수육, 요거트, 케이크 등 제과·제빵 제품도 회원을 대상으로 10~20% 할인하거나 한 개 사면 한 개 더 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훈련·교육으로 익힌 직무 능력 인정 받는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익힌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급받은 인정서를 취직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업은 노동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채용이나 인사에 활용하고, 정부는 직무능력 정보에 기반한 직업훈련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1.08(-11.73)
↓ 코스닥	712.52(-5.62)
↑ 금리 (국고채 3년)	3.676(+0.004)
↓ 환율 (USD)	1318.00(-3.70)